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ubo.or.kr>



요르단 강

† 오늘의 전례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루카 17,11-19 참조)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급할 때는 매달리지만 막상 배짱이 편해지면 간절하던 때를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느님의 자식이 되는 은총을 받았고, 오늘도 감히 주님의 몸을 모시는 영광을 누립니다. 이것은 나병이 낫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제1독서 2열왕 5,14-17

제2독서 2티모 2,8-13

복음 루카 17,1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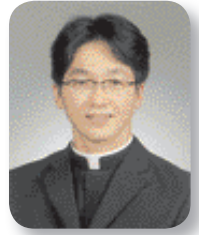
입당송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화답송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영성체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구원은 어디 있을까?



채창석 빈첸시오 신부 | 성의여자중학교 교목실장

2000년 9월, 세상은 온통 밀레니엄 시대라며 들썩이던 때에 군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소 생활은 상상하던 그 이상이었고, 고된 훈련과 규칙적이고 제한된 생활 속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고, 여유있게 밥 먹고, 친구들과 맘껏 통화하고, 방바닥에 누워있고, 초코파이 두 개 먹는 것과 같은 당연하고 평범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군대뿐만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사람은 무언가 결핍되거나 잃었을 때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잃거나 떠나보내면 그 사람의 빈자리가 보이고, 건강이 악화되면 잘 먹고 잘 걷고 하던 그때를 떠올립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소중함을 누리지 못하고 지나서 후회하게 됩니다. 마치 시지프(Sisyphé) 신화에서 한 사람이 정상을 향해 돌을 굴러 올라가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굴러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에 대해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굴러 떨어질 돌덩이에 집착하기 보다는 이미 내게 있는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누리며 사는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

고 삶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열 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 낫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 명만 예수님의 구원보증을 받는데 그 사람만 다시 찾아와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아홉 명은 왜 오지 않았을까요? 치유의 기쁨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잊어버렸을 수 있고, 그동안 아파서 못한 일들을 처리해내느라 분주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나머지 아홉 명은 예수님의 개입이 있었음에도 결국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 안에 예수님은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다시 찾아와 엎드려 감사하던 한명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 안에는 예수님이 자리 잡았고, 앞으로 어떤 고통이나 환난이 와도 거뜬히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나쁜 것은 짧게 가져가고, 좋은 것은 길게 가져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고’, ‘나쁨’이 복잡하게 섞여있는 현세를 살면서 ‘나쁜 것’들에 매이지 말고, ‘좋은 것’들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맘껏 감사하고 즐기면서 오늘을 삽시다. 지금 고마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에 예수님의 구원은 가까이 있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골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하느님께만 드려야 하는 이것을 다른 사물에게 드리지 못하도록 금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느님만이 위대하시므로 그분에게만 최고의 공경과 사랑을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해 교리 퀴즈 25



10월 묵주기도 성월



문화홍보실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

10월 묵주기도 성월은 5월 성모 성월과 더불어 성모님께 특별한 공경을 드리고 그녀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묵주기도 성월의 유래

묵주기도 성월은 10월 7일 ‘묵주기도의 동정마리아 기념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517년 10월 7일 그리스도교 동맹군이 이슬람 제국 군대에 맞서 묵주기도에 힘입어 승리를 거둔 레판토 해전을 기념하여 비오 5세 교황님께서서는 이 날을 묵주기도의 기념일로 정하셨는데 그 후 1883년 레오 13세(재위 1878~1905) 교황님께서 회칙 「최고 사도직 무(Supremi apostolatus)를 발표하시면서 그 날이 들어 있는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제정하여 공적으로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복음서 전체에 담긴 구원의 신비를 묵상

묵주기도는 복음서 전체와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는 기도로 하느님의 구원업적을 찬미하며 감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초대 교회 때는 시편 150장을 바치거나 주님의 기도를 150번 바치기도 하였는데 13세기 이후부터 150번의 성모송을 중심으로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를 드러왔습니다. 여기에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예수님의 공생활 신비를 포함하는 하느님 나라의 계시에 대한 ‘빛의 신비’를 더하여 묵주

도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도라는 것을 더욱 확고히 하고 더욱 완전한 복음의 요약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기도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의 중심은 예수님이셨고 성모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으므로 묵주기도의 모든 묵상은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묵주기도는 성모 신심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성모님의 전구를 구하는 교회의 오래된 기도형태로 그 횡수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바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를 통한 영적 결실의 달

수확의 계절인 가을, 10월은 봄의 계절인 5월 성모 성월과 함께 기도드리기에 가장 좋은 온화한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이 달에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묵주기도를 통하여 더욱 풍요로운 영적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 묵주기도 성월을 맞아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 사회와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평화의 모후이신 동정 마리아의 도우심을 청하며 정성을 다해 자주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합시다. **▶▶▶**



“경신덕에 따른 행위 가운데 첫째가는 것은 ()이다. 하느님에 대한 ()은 그분을 하느님으로, 창조주요 구세주요, 주님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가톨릭교회교리서 2096항)

이 코너를 오려 정답을 적으시고 이름, 세례명, 소속본당 기재 후 교구 문화홍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박성대 요한 신부 | 2대리구 주교대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정호승)

“나는 그들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들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마치 예수님께서 지으신 시처럼 들린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고통의 그늘에서 힘 들어하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살이가 힘들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은 늘 이런 사람들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마태 9,13)

어느 개신교 신자가 쓴 글이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높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수능, 각종 고시, 임용 시험, 취직 시험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만, 이런 기도는 승진, 사업 성공, 국회의

원 당선, 건강 등의 영역으로도 무한 확장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망신이 되어 왔지요.”(세상 속의 교회, 김두식, 39면) 그는 이어서 “시험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암에 걸린 사람은 가장 먼저 ‘도대체 교회에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며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늘 성공한 사람들만이 넘쳐 납니다. 성공한 사람들만이 넘쳐 나는 교회를 과연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라고 썼다.(같은 책, 42면)

칼릴 지브란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아주 옛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까닭에 십자가에 못 박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상스럽게도 나는 어제 그 사람을 세 번이나 만났습니다.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경찰관에게 창녀를 감옥에 보내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는 부랑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교회 안에서 장로와 다투고 있었습니다.”(모래 · 물거품, 진선, 59면)

왜 예수님께서 교회(성당)안에서 장로(신부)와 다투고 계셨을까? 복음과는 다른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의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위로와 사랑을 주신다. **빛과 소금**



아홉을 가진 사람

무대 위에서 공연을 마치고 퇴장을 하던 다섯 남자 중 한 명이 갑자기 마이크 스탠드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관객들은 끝까지 몸 개그로 웃기려 한다고 즐거워했지만 다른 멤버들은 그의 집중력 부족을 질타했습니다. “도대체 너 왜 그러냐? 혼자만 그렇게 튀고 싶냐?” “그게 아니라 갑자기 조명이 꺼지니까 앞이 안 보여서...” 시력이 좋지 않았던 그는 단순히 안경 도수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밤에 운전을 하거나 걷는 게 힘들어 졌을 때도 그저 ‘야맹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연을 마친 후 늘 넘어지기만 하던 그가 중대 발표가 있다며 대기실에서 멤버들을 모았습니다. “미안해~ 사실 나 정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홍록기, 김정식, 이웅호, 표인봉과 더불어 터틴파이브의 멤버로 활약했던 개그맨 이동우 씨는 결혼을 하고 100일쯤 지난 뒤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불치병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은 시세포가 점점 퇴화하는 희귀병으로 유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외에는 원인조차 알 수 없는 병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접한 멤버들은 그동안의 오해에 대한 미안함과 불치병에 걸린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방송 진행자로도 우리들에게 친숙한 그는

5% 남짓 남은 시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 보다 더 왕성한 활동으로 기적과 같은 삶을 일구어 가고 있습니다.

TV 방송을 통해 이동우 씨의 사연을 들은 천안에 사는 40대 남성이 눈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설렘과 희망에 기뻐하며 한걸음에 달려갔지만 기증자를 만난 그는 돌연 눈을 기증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아니 왜 기증받기를 거부하신 거죠?”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을 기증하겠다는 그 남자는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사지를 못 움직이는 그는 하루 종일 누워 지내며 오직 성한 곳 이라고는 눈 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동우 씨는 안구를 기증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아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 있는 것마저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은 생각하기에 따라 가까이에서 쉽게 찾을 수도 있고 잡을 수 없을 만큼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더 감사하며 산다면 어느새 행복은 우리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김민**

금주의 성인



예수의 성녀 테레사(10월 15일)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소화 테레사)와 구분지어 대(大)테레사라 부르는 아빌라의 테레사 성녀께서는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비적 계시를 체험을 하신 후 세속화된 가르멜회의 개혁을 위해 맨발의 가르멜회를 창립하시고 스페인 전역에 17개의 남녀 수도원을 세우셨다. 성녀께서는 영적인 신비체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편지와 책을 저술하셨는데 <자서전>, <완덕의 길>, <영혼의 성> 등은 오늘날까지도 영성문학의 고전으로 널리 읽혀지고 있다. 성녀께서는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비가 중의 한 분으로 그레고리오 15세 교황님에 의해 시성되었으며 바오로 6세 교황님에 의해 최초의 여성 교회학자로 선언되었다.

■ 소람상담소 축복식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은 10월 1일 (화) 오전 11시 교구민들의 신앙 심리 상담을 위한 소람상담소 축복식을 거행하셨다. 교구청 별관에 위치한 소람상담소는 기존 2대리구청 내 상담소와 함께 운영된다.

■ 한나 클라우스 수녀, 교구 방문



성교육 프로그램 틴스타를 창설한 한나 클라우스 수녀는 10월 5일(토) 오전 10시 20분 대구대교구를 방문하여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을 예방하였다.

말씀과 기도로 열어나가는 한 해!
교구민들을 위한 **신앙 다이어리**



2014년 창립 40주년을 맞는 대건인쇄출판사에서는 교구 문화홍보실과 공동으로 2014년도 신앙 다이어리를 제작합니다. 본당 공동체 및 기관·단체 활동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전례와 말씀에 집중하여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우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내용구성** : 교구 소개/교구 내 성지 안내/대리구 소개/본당찾기/연간계획/월간계획/일일 계획/각 월별 전례력/오늘의 말씀사탕/주일 전례 및 복음 말씀/성경읽기 표/미사통상문/주요기도문/대세 주는 법교리상식/성인축일표/교구 내 전화번호
- **선주문 예약** : 판매가 10,000원 (예약기간 내 선주문 시 9,000원)
- **예약기간 및 문의** : 2013년 9월 30일~ 10월 30일 |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6~9



‘신앙의 해’ 기념 **대구주보 교리퀴즈 안내**

연중 제25주일(9월 22일) ‘신앙의 해’ 교리퀴즈 정답은 <통회, 고백, 보속>입니다.
당첨자 : 김수연(소화데레사, 대해), 정규호(요한마리아비안네, 고성), 이정미(요한나, 도량), 강경덕(글라라, 연일), 최정순(도로테아, 남산)

날씨도 선선하니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4일(월) 11:00 계산성당	성요셉 아버지학교 월례미사	10월 14일(월) 20:00 교구청별관대학실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4일(월) 11:00 월성성당	노인병동 입원환우의 영성치유	10월 15일(화) 10:30 행복한재활요양병원 6층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4일(월) 11:00 성건성당	포항지역 학교복음화를 위한 미사	10월 16일(수) 19:00 장량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4일(월) 11:00 신평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0월 17일(목) 10:00 평화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0월 14일(월) 11:00 죽도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9일(토) 10:00 월성성당
2대리구 성소를 위한 기도모임	10월 14일(월) 11:30 범어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10월 19일(토) 11:00 성모당
경주지역 학교복음화를 위한 미사	10월 14일(월) 19:00 성동성당	-	-

성소 | 피정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9명)
 기간: 10.15(화)~16(수) / 매일 셋째주
 내용: 정기모 신부와 함께 하는
 주고 받은 상처의 치유 시간
 문의: 동천성당, 326-5004

마리아 영성 피정(성체현시·미사안수)
 일시: 10.16(수) 13:00~16:30
 지도: 강요셉 신부
 문의: 삼덕성당, 422-6691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일일 대피정
 일시: 10.28(월) 9:00~17:00
 장소: 교육원 대강당
 강사: 정제천(요한) 신부 (예수회)
 문의: (010)5493-1819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314차: 11.8(금)~10(일), 한티피정의집
 문의: 대구ME, 983-0521
 배우자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 그리고 내 마음들기
 일시: 10.20(매월 세번째 주일) 14:00
 장소: 상동성당 수녀원

문의: 예수성심전교수녀회,
 (010)9330-3104

청년 주말 피정(이나시오식 침묵기도)
 일시: 10.26(토) 15:00~27(일) 16:00
 장소: 예수수도회 보은 메리워드
 영성의 집(대전집결 후 이동가능)
 피정비: 3만 원
 문의: (010)5420-0268

**이해인 수녀님, 노영심과
 함께하는 '제주도 눈꽃 피정'**
 기간: 12.13(금)~15(일)
 참가비: 25만 원(항공료 제외)
 문의: 제주 성이시돌 피정의 집
 (064)796-4181, 선착순 마감

춘천교구 천생연분 피정
 오상철신부의 천생연분에서 인연을
 찾으세요! 초혼·재혼 수시접수 중
 네이버 카페: 모곡 피정의 집 참조
 문의: (033)434-4204

교육 | 모집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2014 전기(주간) 석사: 00명

박사: 0명, 석·박사 통합: 0명
 접수기간: 10.28(월)~11.7(목)
 전형일: 11.16(토)
<http://gsot.sogang.ac.kr>

**제2회 가정성화를 위한 성체거동
 도보순례(수원교구 소속)**
 일시: 10.27(일) 10:00
 장소: 어농성지~단대성가정성지
 미사: 15:00, 단대성가정성지
 문의: (031)633-9531, 점심무료

충주성모학교(시각장애) 학생 모집
 대상: 교육·직업재활을 희망하는
 시각 장애인
 지원: 순회교육 및 방문교육 실시
 특전: 장학혜택, 보조공학기기 지원
 문의: (043)852-1374
 연중 상담 가능합니다.

인천교구 실버타운 <마리스텔라>
 2014년 3월, 총 264세대
 1,000병상 인천국제성모병원 요양원 운영
 매일 미사, 다양한 신앙프로그램
 문의: (032)569-8500
<http://www.marisstella.or.kr>

철곡 박 이비인후과
 중이염, 축농증, 비염
 이명, 난청, 보청기 상담
 편도염, 인후염, 역류성질환, 성대질환
 어지럼증 클리닉(달팽이관)
 이비인후과 박규욱(바로로)
 전문의/원장
 동천동 주민센터 옆 파리바게트 2층
 ☎ 053)325-7577

www.gabimaru.co.kr 가비마루 커피
 김재창(프란치스코) 이정숙(베네딕타)
 특허진공티백 100%원두커피
 본당 수익사업 상담환영
 1588-3646 / 053)584-0404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건너편
T.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 재활 치료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인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평일: 09:00~17:30 토요일: 09:00~12:00
 위치: 대곡역사거리-대곡역그린빌 방향 500M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 의 김기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역원 9층
☎ (053)257-8875
www.kisaneye.co.kr

한습 도시락
 대구 ☎(053)963-1188
 한익대점 053)817-3114
 오영숙(바울라), 장종미(아베스)
 ※단체주문시 대구·경산지역 배달가능
 (휴대용 카드 단말기 결제가능)
 대학생MT, 체육대회, 성지순례, 성당단체
 주문시 '아름의집'에서 기념품 증정
<http://www.hsd.co.kr>

사랑하는 자녀에게 밝은 세상을
아이리식은
사랑입니다.
 의학박사
 현, 연세대학교교수 원장 박종원(소시모)
대구연세안과
 ☎053.626-8881-5

치질·내시경
通
 한문도
 병원장 의학박사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신격동 대우아파트 앞
☎ 959-7175
www.hangmuns.com

행사 | 모임

10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10.20(일) 14:00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10월 가나강좌

일시: 10.20(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세계 십자가 전시회

최경환(F하비에르) 신부님의 소장품
 기간: 10.16(수)~23(수) 10:00~16:00
 장소: 옥수성당 전시관
 문의: 792-2233

대구평화방송 개국17주년 기념음악회

일시: 10.25(금) 19:30, 수성아트피아
 출연: 변진섭, 안치환, 오정해, 팍스,
 기쁨과 희망(사제밴드) / 전석 2만 원
 예매: 티켓링크, 251-2610, 2621
<http://www.dgpbcc.co.kr>

교육 | 모임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10.26(토) 10:00, 남산동 대신학원
 주제: 그리스도인의 기도 / 5천 원
 강사: 진(토마스) 신부
 문의: 신학교육원, 660-5105~6

제8차 성경 통독 피정

기간: 10.26(토) 13:30~27(일) 16:00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 회비: 5만 원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http://cafe.daum.net/biap>

대구)508-10-448845-1, 성서사도직

가톨릭 부모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일시: 10.30(수) 13:30~16:3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 5천 원
 주제: 사춘기 청소년 심리 이해
 강사: 조명실 마리아(계명대학교 조교수)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5

선교, 왜 못하는가? 선교세미나미사

일시: 매주 토 10:30~12:30
 장소: 대구 계산문화관 3층
 강사: 이관석 신부 외 다수
 대상: 하느님의 열정으로 선교원하는 분
 문의: 가두선교단, 781-6100

손엘디의 맛깔나는 행복한 가정 무료특강

일시: 10.18(금) 15:00
 문의: 바오로딸서원, 425-5185

43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대구설명회

일시: 10.19(토) 14:00, 남산성당
 초·중·고: 1.4~2.23(3·5·7주)
 대·일반: 1.6~2.16(6주 또는 장기)
 주관: 마신부님(Rev.Brendan MacHale)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가톨릭신문 크루즈 성지순례

기간: 11.15(금)~28(목), 13박 14일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모나코, 튀니지

내측 508만 원, 오션뷰 538만 원
 발코니 568만 원 - 대한항공 이용
 문의: (02)2281-9070 / www.cttour.org

2014년도 백합어린이집 입학설명회

일시: 10.15(화) 10:30(10분전 입실)
 (유아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장소: 백합어린이집 강당
 문의: 256-6862

오순절평화의마을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 화 23:00~일 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몰 앞 20:30
 수성구청 21:00
 문의: 김마리아, (010)5529-3186

채용 | 안내

교구청 사제관 영양실 직원 채용

대상: 만35세~만50세 이하의 신자(여)
 요리에 소질이 있으신 분
 마감: 10.20(일)
 문의: (010)9206-3224

서정길대주교재단 수지의 집 직원 채용

마감: 10.17(목) 18:00
 분야: 상담원 1명, 사무원 1명
 자격: 사회복지사 2급이상,
 운전필수, 주3회 당직 가능자
 문의: 759-3122

노인요양원 SOS프란치스카의 집 요양보호사 채용

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913-1
 문의: 986-2077~8

세란아동발달상담센터
 보건복지부 공식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
 발달지연, 학습부진, 난독증, 아동우울증
 인터넷(제인)중독, 사회성부족, 특장애
 감각통합장애, ADHD, 언어발달지체
 발음장애, 발더 등

원장: 김형우(F, 하비에르) ☎ 053)767-5227
www.seran.or.kr

무료상담, 서비스 비용 중 매월 10~22만원까지 국비지원 가능

이 원 의 료 기

혈압계 · 혈당계 · 휠체어 · 산소치료기
 뜰 · 부항기 · 주열기 · 찜질기
 체온계 · 욕창매트 · 환자용품 · 안마기
 실버카 · 보호대 · 글루코사민 · 오메가3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 2513

30년 전통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476-9275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역 입구
 권중문(파비올라)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8827-6207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마리아)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구 경북지대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新대구정신과
 New Daegu psychiatric clinic

불면증, 갱년기 우울증, 불안, 치매
 식사장애(거식증, 폭식증), 비만, 스트레스
 원장 · 전문의 김 정 윤(라파엘)

지하철 2호선 감삼역 2번 출구 앞
 T. 053)566-0364

본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하지 않습니다!

(주)분도 축복을 전하는 사랑들
 본도석유 / 주유소

난방유 대구전지역 배달
080-003-5189 (무료전화)
 T. 656-2500, 425-7835

새마을사회복지사업 대표 김 현 철(베네딕도)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득 행정심판전문

합동 감정 사무소

대표 박 수 원(스테파노)
 대구 MBC 너거리 문화웨딩 맞은편 3층
 ☎(053)753-4972 / 010-3651-4972